

의료경영전략

의료인들을 위한 경영전문서 '의료경영전략'이 출간됐다.

이 책은 권영대 가톨릭의대 교수와 와이즈인헬스케어 박성진 대표가 공동 집필한 의료경영 전문 총서다.



의사출신으로 경영 분야를 공부한 권 교수와 10여년 간 국내외에서 전문 의료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해 온 박성진 대표는 이 책을 통해 '의료'와 '경영' 두 분야의 접점을 찾아간다.

저자는 '의료기관도 전문 경영이 필요한 시대'라고 주장한다.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치열해지는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 의료인도 의료분야에 전문화된 경영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 책은 의료 경영자의 역할과 기능·경영 전략·경영 혁신 노하우 등을 제시한다. 또 MSO·글로벌 헬스케어(해외환자 유치)·건강관리 서비스·모바일 헬스케어 등 최근 의료계 핵심 이슈로 떠오른 내용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상세히 소개한다.

권 교수는 "의료 산업은 미래 혁신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경영 관점에서 깊이 있는 연구가 부족했다"면서 "실제 의료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경영 전략 수립·실행·평가·개선 방법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병원 등 기존 의료기관들은 더 이상 과거 주먹구구식 경영으로는 살아 남을 수 없다"며 "혁신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실행을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학용어에 숨겨진 이야기 사전

의학용어는 대부분 해부학적 구조와 기능, 사물의 형태 등과 함께 역사·문화·관습·성경·신화·전설 등 다양한 배경을 갖고 만들어지게 돼 용어 속에는 많은 숨겨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

carbuncle(큰종기)은 그 모양이 불붙은 작은 석탄을 연상시키고 또 붉은 보석인 석류석과 비슷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고, injury(손상, 부상)는 법을 지키지 않아 생기는 안전사고에서 유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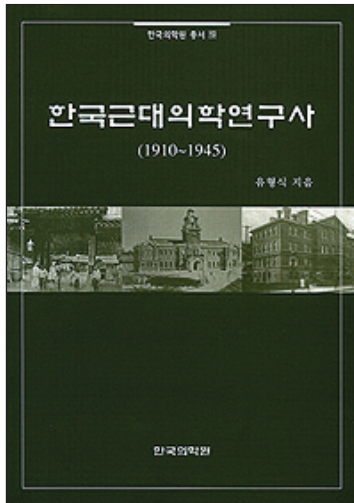
의협신문에 '의학용어에 숨겨진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는 전 연세의대 김경환 교수(약리학)가 글을 모아 '의학용어에 숨겨진 이야기 사전'이란 제목으로 책을 펴냈다.

의학이나 보건관련 분야를 전공하면서 제일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은 낯선 용어다. 게다가 의학용어는 수가 워낙 많아 짧은 시간 안에 익히기도 쉽지 않다.

다행인 것은 단순한 뜻을 가진 접두어·어간·접미어 등의 조합으로 구성돼 있어 기본적인 구성 단어의 뜻만 이해하면 새로 보는 용어일지라도 뜻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이다.

461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일반 의학사전과는 달리 의학용어에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독자가 보다 재미있게 의학용어에 다가가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부록으로는 '흔히 쓰이는 접두어와 접미어'가 함께 수록됐다.

한국근대의학연구사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후 근대의학으로서의 한국의학의 역사적 조명은 진료와 교육에 치우쳐 있었다.

의학발전의 척도는 의학 연구에 의해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는 전문 학회나 각 의과대학교실이 부분적으로 해 놓은 것 외에는 체계적인 정리가 안돼 있다. 오래된 문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수집하기 어렵고 대부분 일본어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연세의대의 유형식 교수가 한국의학원을 통해 펴낸 ‘한국근대의학연구사’가 이러한 요구를 해소했다.

이 책은 총 12장, 부록(연표) 그리고 별첨(전체자료를 담은 CD)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497쪽의 본문은 일본 강점기 한국에서 발간된 의학전문학술지의 9000여개 연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 중 ‘朝鮮醫學會雜誌(조선의학회잡지)’에 발표된 논문이 5914개인데 한국인 의사들이 발표한 1267편이 포함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의학 논문은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일부는 영어로 돼 있는데, 유독 우리말로 된 의학 학술지가 있다.

1930년 우리나라 의사로만 구성된 朝鮮醫師協會(조선의사협회)의 기관지인 ‘朝鮮醫報(조선의보, The Korean Medical Journal)’가 그것이다.

1937년 강제 폐간될 때까지 약 100여편의 논문을 우리말로 발표하였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의학의 3대 요소를 교육·진료·연구라고 할 때 우리는 발표된 의학 논문을 통해 교육과 진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그만큼 연구 내용은 그 나라 의학 수준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나라마다 교육과 진료뿐만 아니라 훌륭한 연구 논문 생산에도 그토록 국력을 모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연구가 해방 후에 시작한 것이 아니고 1910년대에 이미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병리학 분야의 강점기 논문을 정리한 적이 있는데, 자료 수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했던 기억이 있다. 특히 ‘朝鮮醫學會雜誌(조선의학회잡지)’, ‘滿鮮之醫界(만선지의계)’ 등은 국내 도서관에 결본이 많아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열악한 상황에서 유형식 교수는 개인적 열정을 가지고 훌륭한 자료집을 탄생시켰다. 의사학 전공자가 아닌 영상의학자로서 우리나라 의학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된 후 우리 조상과 우리나라에서 일했던 일본인 교수, 의사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